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요약 번역본

국제투자 운영구조의 개혁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요약 번역본

국제투자 운영구조의 개혁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VEST
KOREA



유의사항

UNCTAD 투자기업국은 투자 및 기업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 기관입니다. 지난 40년, 우리는 연구, 정책분석, 정부간 합의점 도출 과정 등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50여 개 국가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국가/경제권)는 경우에 따라 영토 또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특정 국가, 영토, 도시, 관할지역 또는 이들 지역의 경계(국경)와 관련하여 사용된 명칭 및 자료는 유엔 사무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일부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한 것은 통계집계 및 분석작업의 편의상 구분한 것이지 특정 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주요 국가 분류는 다음과 같은 유엔통계청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선진국: OECD 회원국 (칠레, 멕시코, 한국, 터키 제외), EU에 신규 가입한 OECD 비회원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안도라, 버뮤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 마리노.
- 체제전환국: 남동부유럽, 독립국가연합(CIS), 조지아
- 개발도상국: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그 외의 모든 국가들. 통계 상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 (홍콩 SAR), 마카오 특별행정구(마카오 SAR), 대만은 분리하여 집계함

특정 기업 및 이들의 활동에 대해 본 보고서가 언급했다 하여 UNCTAD가 이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지도 상에 표시된 국가간 경계, 명칭, 설정 등은 유엔의 공식적인 인정 또는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에서 사용된 기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거나 별도로 보고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에서는 해당하는 열에 그 어떤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해당 열을 생략하였습니다.

- (-)는 해당 항목의 값이 “0” 내지 미미한 수치인 경우를 의미
- 표 상의 공란은, 별도의 부연설명이 없다면, 해당 항목이 적용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연도 사이에 (/)를 사용한 경우(예: 2010/11)는 회계연도를 의미
- 연도 사이에 (-)를 사용한 경우(예: 2010-2011)는 연도의 시작과 끝 전부를 포괄하는 기간을 의미
- “달러(\$)”는, 별도의 부연설명이 없다면, 미국 달러를 의미
- 연간 성장률 또는 변동률은, 별도의 부연설명이 없을 경우, 연 평균 성장률/변동률을 의미
- 반올림으로 인해 표 상의 개별 수치/퍼센트의 합이 총합과 다를 수 있음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는 여타 연구에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서문

올해로 발간 25주년을 맞이한 『2015 세계투자보고서』는 국제투자 정책 환경 및 전망에 대한 세계적 논의를 담고자 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6% 감소한 1조 2천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5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날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외부 개발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릴 제3차 국제 개발 금융 컨퍼런스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신규 개발 아젠다 이행을 위한 국제투자 정책 및 세제 수립,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구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세계투자보고서에서는 규제 권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조정, 투자자의 책임 등 국제투자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개도국 내 다국적기업의 조세 기여, 조세회피로 인한 세입 누수, 역외투자허브의 역할 등 국제투자의 세제 측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국가간, 양국간, 역내 및 다자간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침이 될 로드맵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조세 및 투자 정책간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원칙과 지침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중요한 시기, 국제투자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참고서가 될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BAN Ki-moon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반기문, UN 사무총장

감사의 글

『2015 세계투자보고서』는 UNCTAD 투자기업국 James X. Zhan 국장 및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직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ichard Bolwijn, Kwangouck Byun, Bruno Casella, Joseph Clements, Hamed El Kady, Kumi Endo, Masataka Fujita, Noelia Garcia Nebra, Axèle Giroud, Joachim Karl, Ventzislav Kotetzov, Guoyong Liang, Hafiz Mirza, Shin Ohinata, Sergey Ripinsky, Diana Rosert, William Speller, Astrit Sulstarova, Claudia Trentini, Elisabeth Tuerk, Joerg Weber, Kee Hwee Wee.

Jeffrey Owens 세무 자문관계서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Bradley Boicourt, Mohamed Chiraz Baly와 Lizanne Martinez는 연구 및 통계를 담당했습니다. 그 외 Bekele Amare, Ana Conover Blancas, Hasinah Essop, Charalampos Giannakopoulos, Thomas van Giffen, Natalia Guerra, Rhea Hoffmann, Mathabo Le Roux, Kendra Magraw, Abraham Negash, Chloe Reis, Davide Rigo, Julia Salasky, John Sasuya, Carmen Saugar Koster, Catharine Titi, 인턴 Anna Mouw 과 Elizabeth Zorrilla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Lise Lingo 는 보고서 원고 교열을, Laurence Duchemin 과 Teresita Ventura는 조판을 맡았습니다. Sophie Combette과 Nadege Hadjemian는 표지 디자인을, Pablo Cortizo는 도표와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Elisabeth Anodeau-Mareschal, Anne Bouchet, Nathalie Eulaerts, Rosalina Goyena, Tadelles Taye, Katia Vieu는 보고서 생산 및 배포를 담당하였습니다.

『2015 세계투자보고서』 초안을 논의한 전문가 회의 등 발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해 주신 외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olfgang Alschner, Carlo Altomonte, Douglas van den Berghe, Nathalie Bernasconi, Yvonne Bol, David Bradbury, Irene Burgers, Jansen Calamita, Krit Carlier, Manjiao Chi, Steve Clark, Alex Cobham, Aaron Cosbey, Lorrain Eden, Maikel Evers, Uche Ewelukwa,

Michael Ewing-Chow, Alessio Farcomeni, Michael Hanni, Martin Hearson, Steffen Hindelang, Lise Johnson, Michael Keen, Eric Kemmeren, Jan Kleinheisterkamp, Victor van Kommer, Markus Krajewski, Federico Lavopa, Michael Lennard, Jan Loeprick, Ricardo Martner, Makane Mbengue, Nara Monkam, Hans Mooij, Ruud de Mooij, Peter Muchlinski, Alexandre Munoz, Thomas Neubig, Andrew Packman, Joost Pauwelyn, Facundo Perez Aznar, Raffaella Piccarreta, Andrea Saldarriaga, Mavluda Sattorova, Ilan Strauss, Lauge Skovgaard Poulsen, Christian Tietje, Jan van den Tooren, Gerben Weistra, Paul Wessendorp. MEED는 서아시아 지역 데이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및 특별 프로그램국, 세계화와 개발전략국, 기술 및 물류국 등 UNCTAD의 타 부서 직원들이 동료 검토 과정에 참가하였으며, 사무총장실도 검토 과정에 참여 하셨습니다. UN 지도제작 부문도 지도 제작 작성에 조언을 주셨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비 정부기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2015 세계투자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정부 측에도 감사 드립니다.

목차

| 서문 _ v

| 감사의 글 _ vi

| 핵심 메시지 _ 1

❖ 세계 투자 동향	1
❖ 지역별 투자 동향	3
❖ 투자 정책 동향	4
❖ 국제투자 운영체제의 개혁: 행동지침	5
❖ 국제 조세·투자 정책 간 일관성 증진	7

| 개관 _ 10

❖ 세계 투자 동향	10
○ 2014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이후 회복세	10
○ 사상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된 개발도상국	12
○ 2014년, 대부분의 지역경제공동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를 경험	14
○ 아시아 다국적기업 주도의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전세계 총액의 3분의 1을 넘어	15
○ 2014년, 국제 인수합병 활동의 반등, 그린필드형 투자의 감소	17
○ 국제투자, 서비스 산업으로의 점진적 편중	19
○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실적은 늘고 비중은 줄어	20
○ 국부펀드의 미미한 해외직접투자, 국영 다국적기업의 떨어진 구매욕	20
○ 해외 생산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본사보다 빠른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	20
❖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적 동향	23
○ 큰 변함없는 아프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	23

● 발전하는 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유입지역으로 부상	23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4년의 증가 후 찾아온 감소	24
● 2014년, 반 토막 난 체제전환국의 외국인직접투자	25
● 선진국, 3년 연속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	26
● 다양한 경향을 보인 경제구조 취약 국가에의 외국인직접투자	26
■ 투자 정책 동향	28
● 투자의 자유화, 진흥, 촉진을 향해 나아가는 투자정책	28
●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아직 소수에 불과	29
● 역내 공조 강화를 통한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확장	29
● 국제투자협정의 개혁을 위한 각 국가와 지역의 여정	30
● 공공분야 규제 권한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제투자협정	31
● 체결 전 단계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투자협정의 증가	31
● 신규 투자자국가 분쟁 조정 건수의 감소, 선진국 분쟁 비중의 증가	31
■ 국제투자 운영체제의 개혁: 행동지침	33
● 기로에 서 있는 국제투자협정, 그 개혁의 필요성	33
● 개혁을 위한 본 보고서의 제언	33
● 국가, 양자, 역내 차원의 행동지침 조율을 위한 전세계적 개혁 필요	35
■ 국제 조세·투자 정책 간 일관성 증진	37
● 개도국 정부 수입의 10%,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나와	37
● 국제투자의 30%, 역외 허브 경유한 투자로 밝혀져	38
● 역외투자허브 경유로 인한 개도국 세입 누수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해	40
● 국내 및 국제 조세·투자 정책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필요성	41

핵심 메시지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세계 투자 동향

2014년 한해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실적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투자자 대상 정책의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위험 요인의 증가 등이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 회수건의 발생으로 신규 투자 효과가 상쇄되었다.

개발도상국은 2% 상승한 6,81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사상 최고실적을 경신, 전년도에 이어 수위를 점했다.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유입국이며, 유입 규모 상위 10개 국가 중 5개국이 개발도상국이다.

둔화된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세는 2014년에도 계속되었다. 국제 기업 인수합병 (M&A)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28% 감소하여 4,9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 내 발생한 대규모 투자회수의 영향이 컸다.

개발도상국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또한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며 다른 경제권에 비해 가장 많은 해외투자를 진행 중이다. 해외투자 규모 상위 20개국가 중 9개국이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이다. 개발도상국 다국적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의 (신흥시장에 위치한)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다.

2014년 대부분의 지역경제공동체와 그 소속국가들의 투자유입 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범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TTIP) 및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국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ASEAN(5%증가한 1,330억 달러)과 RCEP(4% 증가한 3,630억 달러)은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산업에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십 년간 이어진 서비스 산업 자유화, 국가 간 서비스 교역 증대 및 서비스 중심의 국제 가치 사슬 확장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12년

서비스 산업에의 투자는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63%에 달했으며 이는 26%를 점유했던 제조업 투자의 두 배 이상이다. 1차 산업은 총 투자액의 10% 미만을 점유하였다.

2014년 국제 인수합병(M&A) 규모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3,9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십억 달러 이상 규모의 다국적기업 인수합병 계약 건수는 2013년 168건에서 2014년 223건으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은 2014년 전체 인수합병금액의 절반 규모의 투자회수 역시 단행하였다.

그린필드 투자 계획은 2% 감소하여 6,960억달러에 그쳤다. 발표된 그린필드 투자 계획의 3분의 2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였으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다국적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동향은 큰 변동이 없었다.

특수 투자자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자 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2014년 사모펀드의 국제 인수합병 실적은 2천억 달러였으며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로 추진하였다. 국부 펀드는 2014년 16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전세계의 인프라 구축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영 다국적기업의 해외 확장은 이들의 국제 인수합병실적이 39% 감소한 690억 달러에 그치는 등 수그러드는 추세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이들의 해외 생산량은 증가하여 총 7조 9천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매출과 자산은 본사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은 약 7,5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1% 증가한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1조 5천억 달러, 2017년 1조 7천억 달러로의 증가가 기대된다.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 예측 모형과 대형 다국적기업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가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추진 중인 다국적기업은 24%에서 32%로 증가하였다. 해외 인수합병 또한 2015년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러나 흔들리는 유로존, 신흥시장의 지정학적 갈등 및 취약성에 기인한 잠재적 부작용과 같은 정치경제적 위험요인이 회복세에 암초로 남아있다.

지역별 투자 동향

아프리카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540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프리카 지역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비중은 비록 전 세계 및 개발도상국 평균 보다는 낮았으나, 2012년 역대 총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기준으로 48%를 차지, 제조 분야 (21%)의 두 배를 상회하였다. 1차 산업은 3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및 모로코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9퍼센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약 5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대의 유입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 증가한 3,8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근 수년간, 해당 지역 내 국가간 결속이 다국적기업들의 인프라시설 투자를 통해 강해졌다. 서아시아 지역은 안보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2014년 4% 감소한 430억 달러를 기록, 6년째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나마 민간 투자 부문의 약세를 공공 부문의 강세로 일부나마 견인하였다. 전년대비 16% 증가한 41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남아시아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강세가 관측되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연안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4년 14% 하락, 1,5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역대 국제 인수합병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역대 투자 호황이 원자재 가격 상승 호재로 인한 것이었던 만큼, 이번 부진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있어 post-2015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 재정비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2014년, 체제전환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52% 하락한 4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 내 갈등 및 유가 하락, 무역 제재 조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선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28% 하락한 4,990억 달러였다. 투자 회수와 해외계열사 차입금의 변동 등으로 인해 투자 유입은 2004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다. 2014년, 선진국 발(發) 해외직접 투자는 8,230억 달러로 꾸준한 실적을 보였으며, 해외 인수합병은 탄력을 받았다. 외국인직접투자 수익 증가로, 특히 미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었다.

경제구조 취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가 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저개발국(LDC) 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4% 증가하였다. 내륙개발도상국(LLDC), 그 중에서도 아시아와 남미 지역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3%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SIDS)의 경우 국제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22% 상승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타 자금 조달 수단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국가 개발에 다각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구조 취약 국가의 주요 국외 개발 재원이다. 2014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은 저개발국과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에서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내륙 개발도상국에서는 4배 증가하였다. 국제사회의 투자와 개발을 위한 공조에 힘입어 경제구조 취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은 2030년에 지금 보다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위 국가들의 경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증진, 그리고 경제적 다각화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용도의 제고일 것이다.

❖ 투자 정책 동향

전세계 각국의 투자 정책은 대부분 투자 자유화, 진흥 및 촉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4년 80% 이상의 투자 정책이 진입 조건 개선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입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투자 촉진 및 분야 별 자유화(예: 인프라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산업(교통, 에너지 및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를 위한 투자 진흥책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주요 지속가능발전 분야(기간 설비, 보건, 교육, 기후변화 완화)에의 민간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투자 진흥책은 단 8%에 불과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투자 격차(『2014 세계 투자 보고서』)를 감안하면 주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투자협정(IIA) 체제 개선을 위한 각 국가, 그리고 지역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1개의 신규 국제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대부분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캐나다가 7개의 신규 조약을 체결하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가운데, 국제투자협정은 3,271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각 국가, 그리고 지역들은 투자 정책 수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 중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투자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행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기능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5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기 체결된 국제투자협정 모델을 검토 및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노르웨이와 EU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네시아는 새 국제투자협정 전략을 모색하며 기존 조약을 종결하는 추세이다.

체결 전 단계 결의안을 채택하는 국제투자협정의 수는 아직은 적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약 228개의 조약이 투자 “인수” 또는 “설립” 기업에 대해 자국민 대우를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일본, 그리고 EU가 상기 조약의 대부분을 체결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들(칠레, 코스타리카, 한국, 페루 및 싱가포르)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14년 발생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조정(ISDS) 건수는 42건으로 조약 관련 총 분쟁 건수는 608건으로 증가하였다. 분쟁청구로 인한 손해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전가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분쟁 청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이 제기하고 있다. 2014년 43개에 대해 판결이나 총 종결 건수는 405건이며, 국가는 이중의 36%를, 투자자는 27%를 승소하였다. 나머지는 합의되었거나 분쟁이 중단된 경우이다.

국제투자 운영체제의 개혁: 행동지침

국제투자 운영체제의 체계적인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토론회 및 공청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주 관심사는 더이상 개혁의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과 방법, 그리고 범위에 대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개혁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투자협정 개혁안의 도출을 위해 지난 60여년간의 규정 수립을 통해 얻은 다음과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i) 국제투자협정의 악영향과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막기 위해 보호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 (ii) 투자 진흥의 도구로써 국제투자협정의 한계는 존재하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부분 또한 분명히 있다.
- (iii)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역량의 강화뿐만 아니라 정책, 체계적 통일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국제투자협정의 개혁은 다음 다섯 가지 주요 사안의 해결을 목표로 해야한다: (i) 공익을 위해 규제를 내릴 권리와 같은 국가의 주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을 것 (ii) 투자 분쟁 조정 절차의 개혁을 통해 현행 체제가 정당한 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것 (iii) 국제투자협정 내에서 투자 진흥과 촉진을 위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것 (iv) 책임감 있는 투자를 촉진하여 해외투자의 잠재적 영향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력은 최소화할 것 (v)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현행 체제의 공백, 중복, 그리고 모순을 해결하며 투자 관계의 일관성을 증진할 것

UNCTAD는 상기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본 보고서는 국제투자협정의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한다. 아래 제안들의 적절한 조정과 조합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규제 권한의 보호:** 최혜국 대우(MFN)조약, 공평한 대우(FET)조약, 간접 수용 및 기타 예외 조항(예: 국가 안보 및 공공 정책 관련 되는 경우)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 **투자 분쟁 조정 절차의 개혁:** (i) 현행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투자자-국가간 분쟁 조정의 중재 방식을 개선하거나, (ii) 새로운 투자자-국가간 분쟁 조정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는 중재 절차 개선, 투자자 신청 권리 제한, 필터링 절차 도입, 현지 소송 요건 도입 등과 같은 기존 중재 시스템의 보완과 더불어 분쟁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제시나 항소 기관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추가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후자를 원하는 국가는 상설 국제투자 재판소를 설립하거나 현존하는 국가간, 혹은 국내 분쟁 중재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 **투자의 진흥과 촉진:** 대내외 투자 진흥 관련 조항(예: 투자 대상국과 투자국의 의무 등) 삽입 하거나 투자 촉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역내 투자 진흥 조항을 도입한다.
- **책임감 있는 투자의 강화:** 기준을 임의로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국내 법 준수의 의무 등 투자자의 책임을 명기한다.
-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전체적인 일관성 강화:**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네트워크를 간소하고 공고하게 만들며, 국제투자협정 및 국제법 기구 간의 상호 연계를 관리하고, 국제투자협정 개혁과 국내 정책 과제 간의 연계를 고려한다.

국제투자협정 개혁 시 정책입안자들은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동시에 투자를 진흥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 선택 시의 결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부 조합은 “과도한” 효과를 내거나 투자 보호라는 근본적 취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 국제투자협정의 개혁이 국내, 양자간, 역내 그리고 다자간 수준에 끼칠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각 수준에서의 (i) 문제점을 파악 및 점검하고, (ii)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실행 계획을 도출하며, (iii) 계획을 실행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개혁안은 국제투자협정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의 달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핵심 개혁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자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부재한 현 상황과 기존에 체결된 국제투자협정의 수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투자협정 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 세계적인 공조 체계 하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위 공조체계는 국제투자협정 개혁에 대한 안전망을 정책 분석, 다양한 수준/차원에서의 절차 조율, 기구간의 역할 정리, 기술적 보완 및 구성원간 합의 도출을 통해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UNCTAD는, 현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전원의 공조만이 이 체제의 안전성, 명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정 체제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제 조세 · 투자 정책 간 일관성 증진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국가 재정 기여도에 대한 강도 높은 토론과 구체적인 정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G20 국가에서는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국제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재원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 회피 방지책의 입안은 국내 세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UNCTAD의 추산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은 개발도상국 조세 수입에 연간 약 7,300억 달러를 기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기업 조세 납부액의 23%이자 정부 총 세입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기업의 조세 공헌은 국가 그리고 지역별로 그 규모(및 구성요인)가 다양하다. 선진국에서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여도가 더 높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얼마나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평균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정부들은 예산의 14%를 해외 기업에 의지한다).

또한 국가의 개발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의 세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은 법인세의 2배 이상을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로열티, 관세, 고용 관련 세금,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유형의 세금과 부담금의 형태로 주재국 정부에 지출한다.

다국적기업은 해외투자를 위한 기업 구조 구축에 있어 운영과 경영에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가장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와 방향은 다국적기업 대상의 조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투자의 구조와 방법을 달리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조세 회피로 인해 해외 조세회피처나 특수 목적 회사와 같은 역외투자허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업의 해외투자 총액 중 약 30%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역외투자허브를

경유한다. (UNCTAD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기업이 역외투자허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다른 부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절세를 위함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 국가 간의 세율이나 제도의 차이, 혹은 세무 조약의 허점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한다. 다국적기업은 절세를 위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구조를 구축하는데, 대표적 유형 두 가지는 조세회피처에 (i)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는 것과 (ii) 자회사를 설립 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조세 회피를 위해 역외투자허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나 두 번째 방식은 역외 허브간 직접 투자에 의존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는 개발도상국/선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국제적 사안이지만, 이런 고도의 전략에 대응할 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이윤의 해외이전이 이들의 지속가능발전 추구에 보다 큰 악영향을 미친다.

조세 회피는 국가 발전 재원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한다.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연간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원 손실이 역외투자허브를 경유한 투자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중 역외 허브를 경유한 투자액 비중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 수익 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역외 허브를 경유한 투자가 많을수록 총 조세 수익은 줄어드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역외 허브 경유 투자가 10% 증가할 때마다 조세 수익률이 1% 줄어들었으며,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심각한 세원 손실로 이어진다. 조세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세원의 기업 투자자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투자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에 조세 수입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투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조세 회피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역외투자허브는 국제투자 흐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외투자허브를 통한 투자 촉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약을 도입할 때 반드시 투자 정책적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야 말로 기업의 절세구조구축의 핵심이지만, 국제사회는 조세 회피 방지책에 대한 논의 시 정작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인 투자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 회피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할 때 투자정책의 측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 조세 및 투자 정책 간 일관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지침들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투자 정책과 구상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세금감면책의 폐지와, 조세회피방지책이 투자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고, 투자유입국-투자국-경유국 간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책임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제 투자·조세 협약 상호 간에 끼치는 영향에 대응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와 세원의 기여도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조세회피 방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14년 세계투자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재원의 과부족과 개발도상국에서의 투자 격차 감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논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투자협정 및 국제 조세 체계를 포괄하는 국제투자 정책 환경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기 두 체제는 3,000개의 양자 협약들이 얹힌 ‘스파게티 보울’과 같으며 상호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도전과제를 갖고 있다. 물론 각자 우선순위는 다를 순 있으나 둘 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도출하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 보다 포괄적이고 개선된 운영구조, 그리고 국제 조세와 투자 정책 간의 일관성 증진을 그 목표로 한다면,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투자 및 개발 공동체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국가 간 투자 협력의 기틀을 언젠간 마련할 것이다.

개관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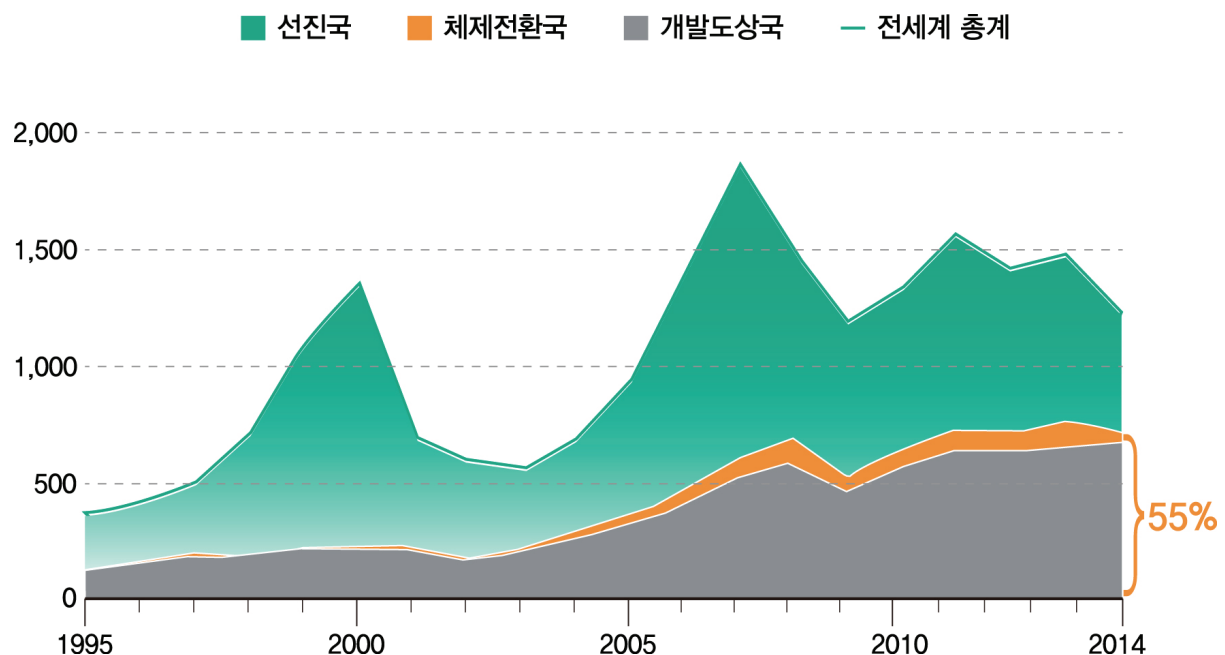
세계 투자 동향

2014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이후 회복세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전년의 1조 4,700억 달러에서 16% 감소한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1).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투자자 대상 정책의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대규모 투자 회수로 인해 신규 투자 효과가 상쇄되었다. 전년도에 GDP, 무역, 총 고정자본 형성, 고용 등 거시적 지표들이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표 1).

그림 1 1995-2014년 세계 및 지역별 FDI 유입액

(단위: 십억 달러)



출처 :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www.unctad.org/fdistatistics).

표 1	1995–2014년 세계 및 지역별 각 지표별 성장률								(단위: 십억 달러)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	2016 ^a
GDP	1.5	-2.0	4.1	2.9	2.4	2.5	2.6	2.8	3.1
Trade	3.0	-10.6	12.6	6.8	2.8	3.5	3.4	3.7	4.7
GFCF	3.0	-3.5	5.7	5.5	3.9	3.2	2.9	3.0	4.7
고용	1.2	1.1	1.2	1.4	1.4	1.4	1.3	1.3	1.2
FDI	-20.4	-20.4	11.9	17.7	-10.3	4.6	-16.3	11.4	8.4
<i>Memorandum</i>									
FDI 규모 (단위: 1조 달러)	1.49	1.19	1.33	1.56	1.40	1.47	1.23	1.37	1.48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2008-2014년 FDI); UN(2015), GDP; IMF(2015),

총 고정자본 형성(GFCF) 및 무역; ILO, 고용률; UNCTAD, 2015-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추정치.

a: 전망

참조: 외국인직접투자 집계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역외투자허브는 제외함.

GFCF = 총 고정 자본 형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불가능하지만, 2015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성장세를 띠는 선진국 경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요 활성화에 부응하는 통화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자유화와 진흥책이 외국인직접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 예측 모형과 대형 다국적기업 대상의 설문조사결과 모두 2015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전망하였다.

2015년, 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11% 증가한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6년과 2017년, 더욱 증가하여 각각 1조 5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UNCTAD의 조사 결과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할 의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 기업의 비중은 24%에서 32%로 증가하였다. 2015년 초 몇 개월간의 추이는 상기 전망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흔들리는 유로존이나 신흥시장의 지정학적 갈등 및 취약성에서 기인한 잠재적 부작용과 같은 정치경제적 위험요인이 회복세에 암초로 남아있다.

● 사상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된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6,810억 달러 (표2)에 달하며 이는 전세계 외국인직접 투자의 55%를 차지한다. 유입 규모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개발도상국이다 (그림 2).

그림 2 2013-2014년 상위 20개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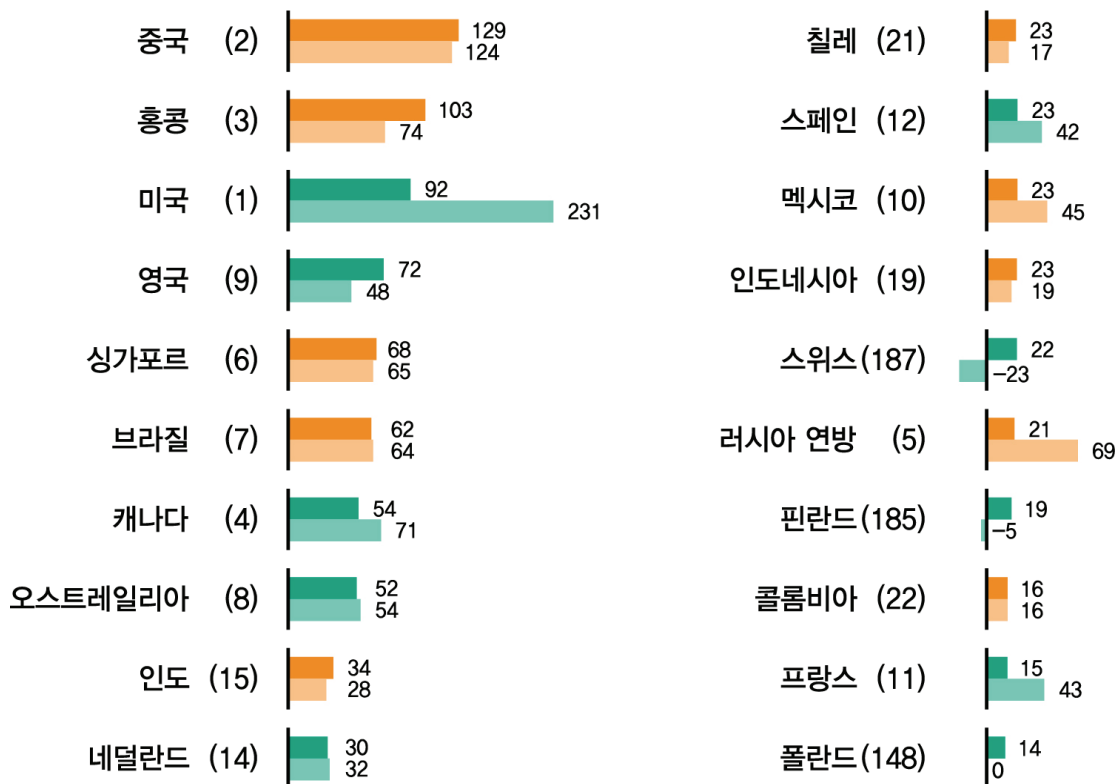
(x) = 2013 순위

선진국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 2014 ■ 2013

■ 2014 ■ 2013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 (www.unctad.org/fdistatistics).

참조: 외국인직접투자 집계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역외투자허브는 제외함.

표 2 2012-2014 년 지역별 FDI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FDI 유입			FDI 유출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세계	1,403	1,467	1,228	1,284	1,306	1,354
선진국	679	697	499	873	834	823
EU	401	326	289	376	317	316
북미	209	301	146	365	379	390
개발도상국	639	671	681	357	381	468
아프리카	56	54	54	12	16	13
아시아	401	428	465	299	335	432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321	348	381	266	292	383
남아시아	32	36	41	10	2	11
서아시아	48	45	43	23	41	38
라틴 아메리카	178	186	159	44	28	23
오세아니아	4	3	3	2	1	0
체제전환국	85	100	48	54	91	63
경제구조 취약 국가	58	51	52	10	13	10
저개발국	24	22	23	5	7	3
최빈국	34	30	29	2	4	6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7	6	7	2	1	1
세계 FDI 대비 비중						
선진국	48.4	47.5	40.6	68.0	63.8	60.8
EU	28.6	22.2	23.5	29.3	24.3	23.3
북미	14.9	20.5	11.9	28.5	29.0	28.8
개발도상국	45.6	45.7	55.5	27.8	29.2	34.6
아프리카	4.0	3.7	4.4	1.0	1.2	1.0
아시아	28.6	29.2	37.9	23.3	25.7	31.9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22.9	23.7	31.0	20.7	22.4	28.3
남아시아	2.3	2.4	3.4	0.8	0.2	0.8
서아시아	3.4	3.0	3.5	1.8	3.1	2.8
라틴 아메리카	12.7	12.7	13.0	3.4	2.2	1.7
오세아니아	0.3	0.2	0.2	0.1	0.1	0.0
체제전환국	6.1	6.8	3.9	4.2	7.0	4.7
경제구조 취약 국가^a	4.1	3.5	4.3	0.7	1.0	0.8
저개발국	1.7	1.5	1.9	0.4	0.6	0.2
최빈국	2.5	2.0	2.4	0.2	0.3	0.4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0.5	0.4	0.6	0.2	0.1	0.1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 (www.unctad.org/fdistatistics).

a: 복수의 집단에 소속되어있는 경우 한 번만 집계함.

하지만 이 투자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있다. 해당 지역에 유입된, 전년 대비 9% 증가한, 4,650억 달러는 전 개발도상국 유입액의 3분의 2이상이다. 역내 안보 악화로 6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인 서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아시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지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부진을 사하라 이남 지역이 상쇄하며 540억 달러로 변함이 없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4% 감소한 1,590억 달러에 기록하는데 그쳤다.

체제전환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52% 하락한 480억달러를 기록 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연방의 5위에서 16위로 급락할 정도로 부진했던 2014년 실적에서 기인한다.

국제 인수합병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28% 하락한 4,9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 대상의 외국인직접투자가 920억 달러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년 있었던 사상 최대규모의 투자회수건의 영향이며, 해당 건 제외 시의 실적은 비교적 준수한 편이다. 유럽으로 향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1% 감소한 2,890억 달러로,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의 약 3분의 1 정도다.

● 2014년, 대부분의 지역경제공동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를 경험

2014년, 전세계적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여파는 지역경제공동체라고 비껴나가지 않았다. 범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TTIP)이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이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3). 아시아 지역경제공동체 중에서는 ASEAN (5% 상승, 1,330억 달러) 과 RCEP (4% 상승, 3,630억 달러) 만이 호조를 보였다. 지역경제공동체들의 투자 문호 개방이나 우대 정책 정비와 같은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 2013-2014년 주요 경제공동체 별 외국인 투자 유입실적

(단위: 십억 달러)

지역/ 지역간 그룹	2013		2014	
	FDI 유입 (10억 달러)	전세계 비중 (%)	FDI 유입 (10억 달러)	전세계 비중 (%)
APEC	837	57	652	53
G20	894	61	635	52
RCEP	349	24	363	30
TTIP	564	38	350	28
TPP	517	35	345	28
BRICS	294	20	252	21
NAFTA	346	57	169	14
ASEAN	126	9	133	11
MERCOSUR	83	6	73	6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 (www.unctad.org/fdi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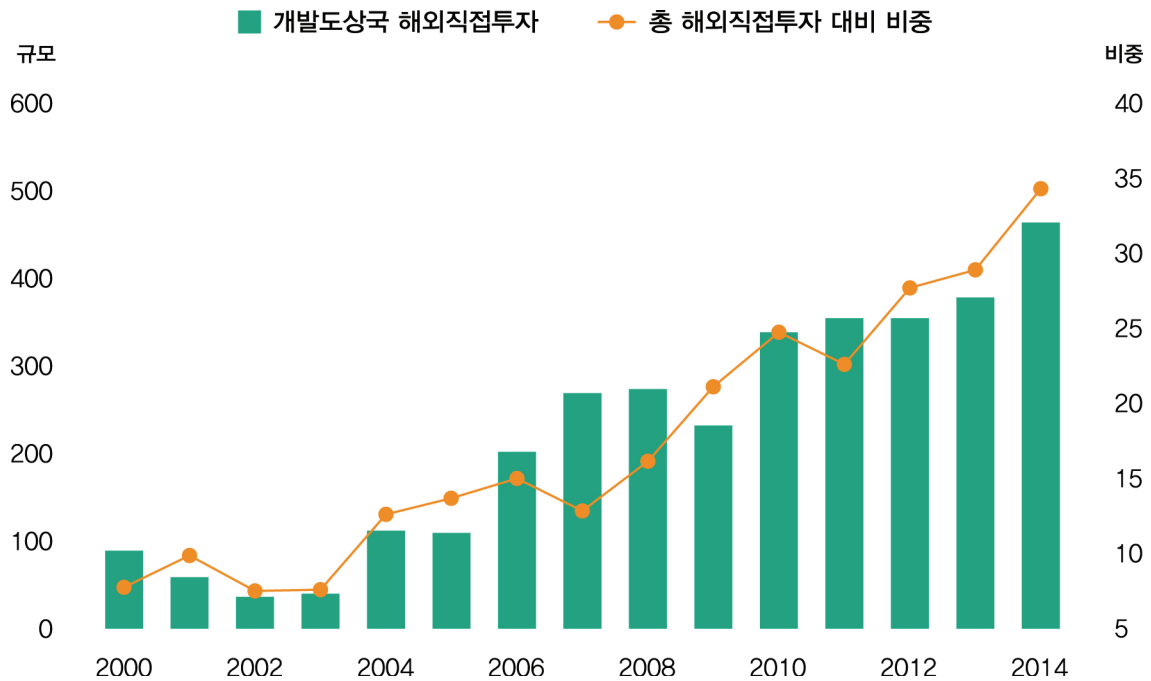
참조: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내림차순)으로 정렬. G20 = G20 회원국 중 EU를 제외한 19개국의 실적; APEC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TTIP = 범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TP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RCE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BRICS = 브라질, 러시아연방, 인도,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MERCOSUR = 남미 공동시장.

● 아시아 다국적기업 주도의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전세계 총액의 3분의 1을 넘어

2014년,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약 4,68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다. 2007년, 13%에 머물렀던 해외직접투자에서의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이제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그림 4). 상위 20대 투자국 중 9개국은 개발도상국이거나 체제전환국이다(그림 5).

그림 4 2000 - 2014년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액 및 그 비중

(단위: 십억 달러)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 (www.unctad.org/fdistatistics).

참조: 카리브해 연안 역외투자허브 수치 제외.

2013년, 개발도상국 간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009년 1조 7천억 달러에서 3분의 2 정도 증가한 2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신흥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하였다. 가장 저개발 된 남-남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직 낮으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다수 개도국은 가까운 지역에 투자하는 경향성을 띄는데 이는 지역적 유사성으로 인한 기업의 초기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역내 시장과 가치사슬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남-남 지역의 해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인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동기와 투자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간의) 역사적인 연관 등이 꼽힌다.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지분 자본 투자의 형태를 취한다면 선진국의 경우 수익 재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현재81%) (그림 6). 지분자본의 투자는 생산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수익 재투자는 주로 현금 보유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림 5 2013-2014년 상위 20개 해외직접투자국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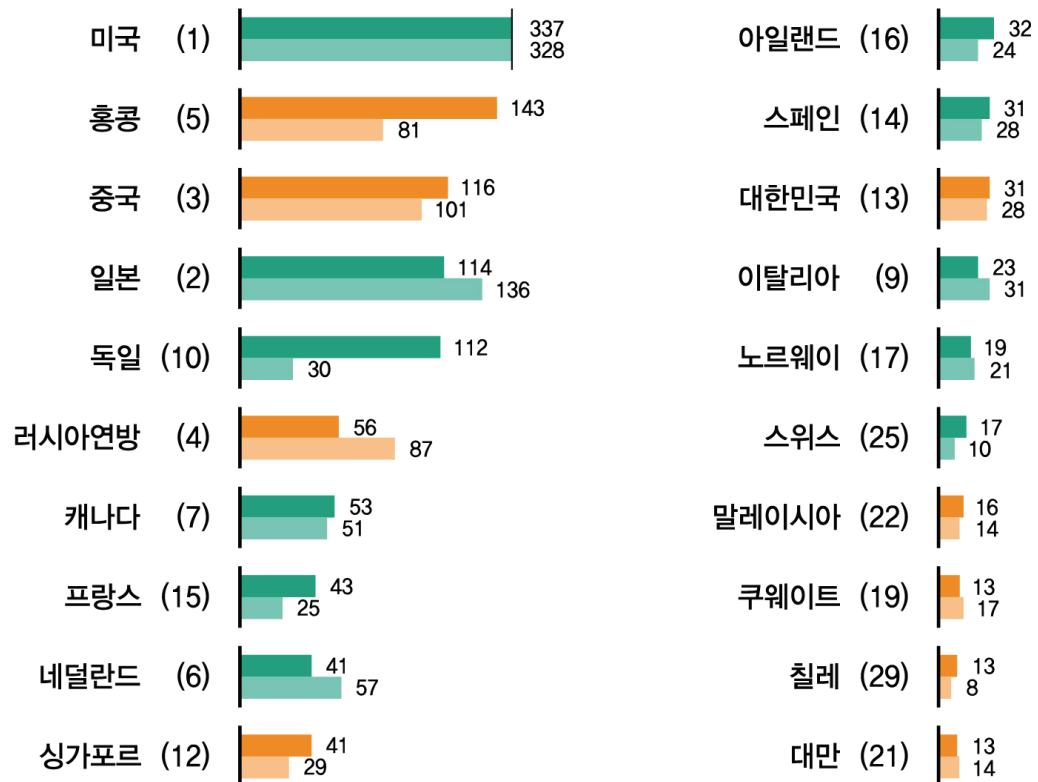
(x) = 2013 순위

선진국

■ 2014 ■ 2013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 2014 ■ 2013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 (www.unctad.org/fdistatistics).

참조: 카리브해 연안의 역외투자허브 수치 제외.

2014년, 국제 인수합병 활동의 반등, 그린필드형 투자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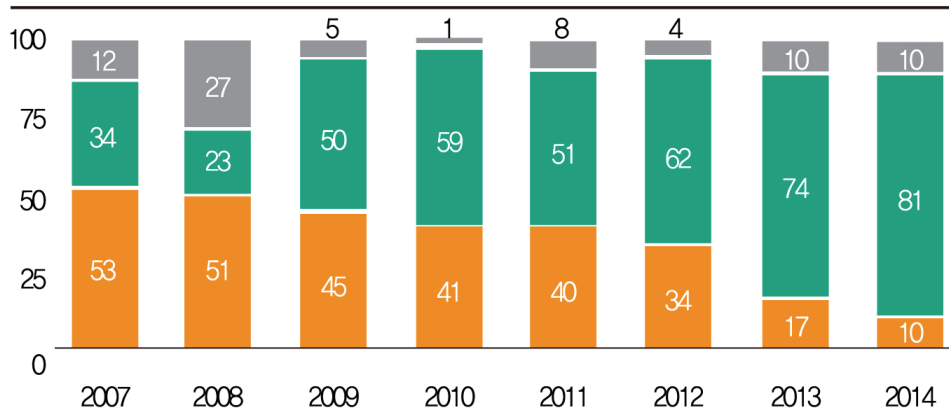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인수합병(M&A) 활동이 2014년에는 반등하였다. 작년에 벌어진 모든 국제 인수합병의 가치는 28% 증가한 3,990억 달러로 이는 다국적기업들의 누적된 현금 보유고와 저금리 대출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국제 인수합병의 주요 동인으로는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간 경쟁과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이 꼽힌다.

그림 6 2007-2014년 경제 수준 및 유형 별 외국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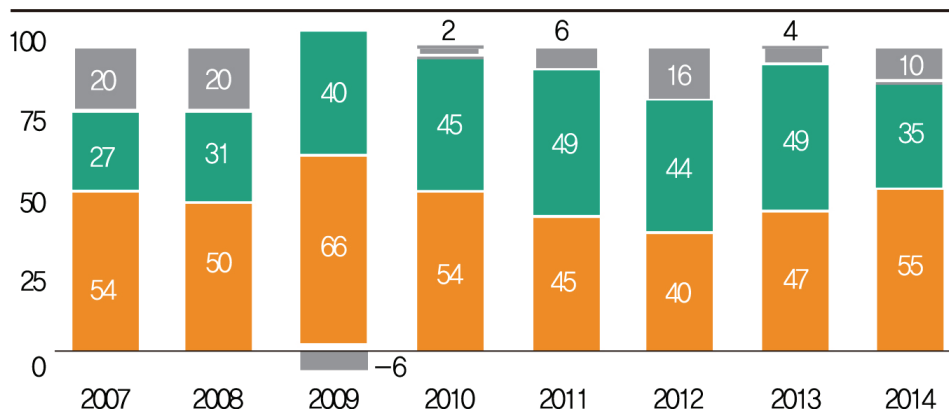
(단위: %)

■ 지분자본투자 ■ 재투자 수익 ■ 기타 자본(해외계열사 차입금)

선진국^a 다국적기업



개발 도상국^b 다국적기업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 (www.unctad.org/fdistatistics).

a에 포함된 국가: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

b에 포함된 국가: 알제리, 앙골라, 안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칠레, 코스타리카, 퀴라소,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쿠웨이트, 에소토, 말라위, 멕시코, 몽고, 영국령 몬트세랫, 모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군도, 싱가포르, 세인트 마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수리남, 스와질랜드,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우간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및 베트남.

대형 인수합병의 발생이 국제 인수합병 총액을 증대시켰다. 10억 달러 이상의 국제 인수합병 계약 건수는 2013년 168건에서 2014년 223건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은 전체 인수합병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회수 역시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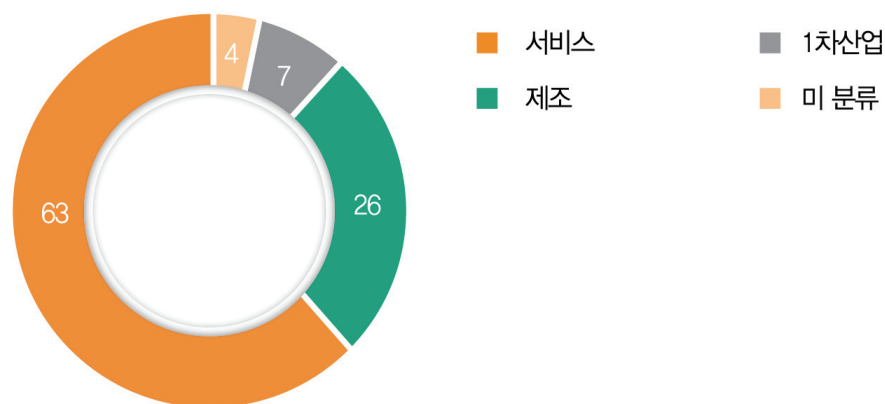
신규 그린필드형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편으로 2% 감소한 6,960억 달러를 2014년에 기록하였다.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그린필드형 투자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다국적기업들의 그린필드형 투자는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은 2014년 신규 그린필드 투자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 국제투자, 서비스 산업으로의 점진적 편중

가장 최신 자료인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에서 서비스 산업은 제조 분야(26%)의 2.5 배이자 1차산업(7%)의 9배에 달하는 63%를 차지하였다(그림 7).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2001년 5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세계 외국인직접 투자가 편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부가가치의 70%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림 7 2012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총 금액 대비 %)



출처: UNCTAD, 외국인직접투자/다국적기업 데이터베이스(www.unctad.org/fdistatistics).

단순히 세계 경제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말로 서비스 산업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설명할 수 없으리라. 투자대상국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서비스 교역의 증대,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등장으로 인한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국제화 등이 주요한 요인이다.

●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실적은 늘고 비중은 줄어

2014년 사모펀드가 국제적으로 인수합병한 기업들의 총 가치는 2천억 달러로 규모의 측면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국제 인수합병의 17%에 해당하나 2013년보다 6% 포인트, 2008년보다는 13%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사모펀드의 투자 규모가 증가한 것은 많은 현금(약 3,600억 달러 정도)이 사모펀드에 몰린 것과, 선진국의 저금리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하여 많은 차입이 발생한 것,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북미와 유럽이 사모펀드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지만, 2014년, 사모펀드의 아시아 지역 인수합병 실적은 괄목할만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 국부펀드의 미미한 해외직접투자, 국영 다국적기업의 떨어진 구매욕

100개 남짓한 국부펀드가 전세계 관리 자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7조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산의 극히 일부만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된다. 국부펀드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4년 160억 달러로 증가하여 3년만에 반전하였다. 일부 국부펀드는 장기적인 자산운용수단으로 해외기업 인수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같은 해외직접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국부펀드의 절반 이상이 인프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거나 확대하였다. 인프라는 대규모 투자 기회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하기에 국부펀드에 있어 중요한 자산 집단이다.

대조적으로 국영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감소하여 2014년 이들에 의한 국제 인수합병 및 그린필드 프로젝트가 각각 39% 및 18% 하락,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영 다국적기업의 투자 부진은 경영전략의 산물일 수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진행 중이며, 자원채굴 분야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 같은 정책적 요소들도 국영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를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생산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본사보다 빠른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

2014년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들의 매출과 부가가치는 각각 7.6%와

4.2%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7,500만명을 고용하였다(표 3). 투자대상국 내에서 이들 해외 자회사가 거둔 재무 성과가 개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2013년 6.1%에서 2014년 6.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의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전세계 5천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은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보다 40% 늘어난 4조 4천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위 100대, 혹은 특정업체(예: 전기 등 공공분야)에 속한 다국적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8). 지난 2년간 일부 업체(예: 원유, 가스, 전기 등)에 속한 다국적기업들은 설비 투자 및 인수의 용도로 현금성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3 전세계 FDI 및 해외생산 관련 주요지표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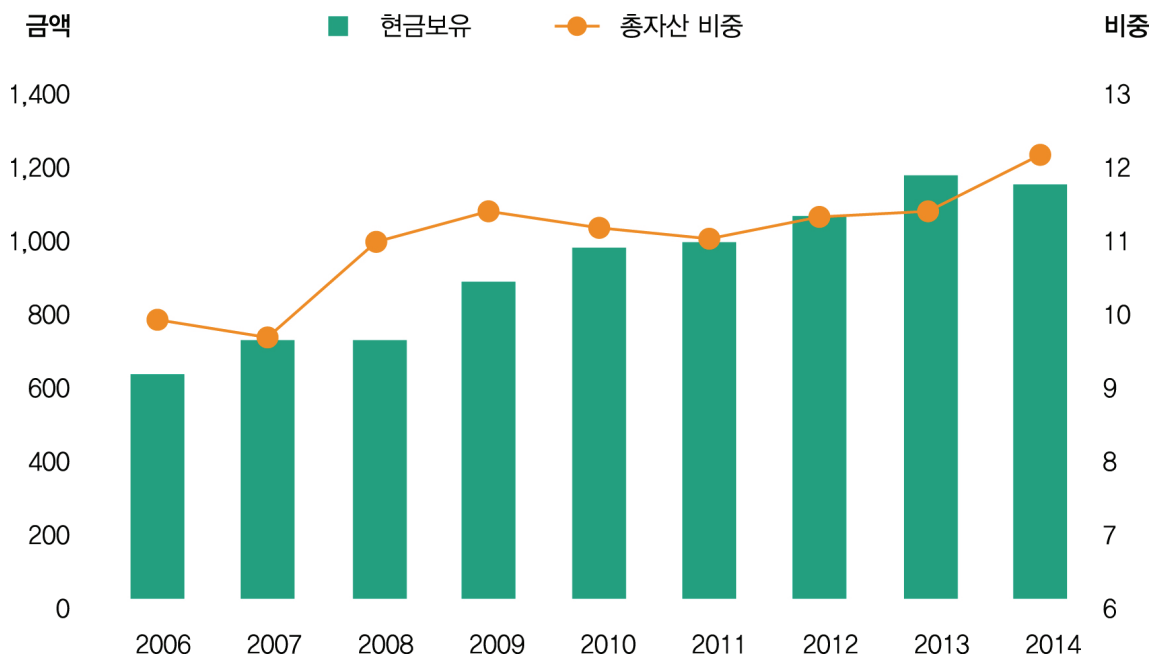
항목	현재 가격 기준 규모				
	1990	2005-2007 (금융 위기 전 평균)	2012	2013	2014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205	1,397	1,403	1,467	1,228
해외 직접 투자	244	1,423	1,284	1,306	1,354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2,198	13,894	22,073	26,035	26,039
해외 직접투자 잔액	2,254	14,883	22,527	25,975	25,875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수익 ^a 투자 수익	82	1 024	1 467	1 517	1 575
수익률 ^b	4.4	7.6	7.0	6.1	6.4
해외 직접 투자 수익 ^a	128	1,105	1,445	1,453	1,486
수익률 ^b	5.9	7.6	6.6	5.8	5.9
해외 M&A	98	729	328	313	399
해외 자회사 매각	4,723	21,469	31,687	33,775c	36,356c
해외 자회사 부가가치 (상품)	881	4,878	7,105	7,562c	7,882c
해외 자회사 총 자산	3,893	42,179	88,536	95,230c	102,040c
해외 자회사 수출	1,444	4,976	7,469	7,688d	7,803d
해외 자회사 고용 (단위: 천명)	20,625	53,306	69,359	71,297c	75,075c
Memorandum					
GDP ^e	22,327	51,799	73,457	75,453	77,283
총 고정 자본 형성 ^e	5,592	12,219	17,650	18,279	18,784
로열티, 라이선스 비	31	172	277	298	310
상품과 용역 수출 ^e	4,332	14,927	22,407	23,063	23,409

출처: UNCTAD.

a 외국인직접투자 수익은 174개국의 데이터를, 해외직접투자 수익은 143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 외국 인직접투자 잔액의 90% 이상을 대변하고 있음.

- b 외국인직접투자 수익 및 잔액 자료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계산.
- c 2013년과 2014년 자료는 1980-2012년 종속변수의 시차 변수 및 대외 총 잔액 대비 개별 변수의 패널 고정 효과 모형을 바탕으로 추산.
- d 1998-2014년 자료는 1998년 기준의 해외 자회사 국제 수출 비중 (33.3%)을 적용하여 계산. 1995-1997년 자료는 1982-1994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대비 해외 자회사 수출 규모를 선형 회귀 분석하여 도출하였음.
- e IMF 자료 (2015).

그림 8 2006-2014 100대 다국적기업의 현금 보유량과 총 자산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UNCTAD, Thomson ONE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적 동향

● 큰 변함없는 아프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아프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예년과 비슷한 540억 달러 (표 2)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5% 감소한 115억 달러였다. 역내 일부 국가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하락폭이 나머지 국가의 증가분 보다 더 컸다. 이집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4% 증가한 48억 달러를, 모로코는 9%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10% 감소한 128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었다. 에볼라의 창궐, 안보 문제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악재로 작용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11% 증가한 68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탄자니아의 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고 에티오피아는 전세계 의류와 식물 관련 다국적기업들의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중앙 아프리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12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었다. 콩고의 경우 2배 증가한 55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원자재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에도 상당한 액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전년대비 2.4% 하락한 10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여전히 역내 최대 유입국 (57억 달러, 전년대비 31% 감소)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잠비크(49억 달러)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프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있다. 프랑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2014년 아프리카에서 큰 규모의 투자회수를 단행하였는데, 이들의 빈자리를 개도국 다국적기업들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지역의 인수합병은 2013년 38억 달러에서 32% 증가한 51억 달러를 2014년에 원유산업과 금융업 등지에서 기록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낮고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중 금융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12년 까지 아프리카에 유입된 서비스 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절반 이상이 금융 (56%)에 투자되었으며 교통·물류·통신(21%)과 기업활동 (9%)이 그 뒤를 이었다.

● 발전하는 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유입지역으로 부상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9% 증가하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2014년, 역대 최고 수준인 4,6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최대의 해외투자유입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아시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2% 증가한 2,480억 달러로, 중국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세계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이 되었다. 홍콩은 39% 증가한 1,0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1,330억 달러를 기록, 5%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유입실적은 세계 5위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인 싱가포르가 견인하였다.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건실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20%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결속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역내 주요 투자처인 인프라 부문에서 도드라졌다. 홍콩, 중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는 역내 인프라 부문의 큰 손으로 지분자본투자와 그 외 방식으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정책이나 아세안 회원국의 물류 산업 개방 조치 등의 역내 결속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인프라 투자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41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 4분의 3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는 22%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인도는 해외직접투자에도 적극적이어서 전년도의 추락에서 무려 5배가 증가한 1백억 달러의 실적 기록하였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의 일부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관측되었다. 남아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 있어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뒤쳐져 있으나 성공사례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인도를 넘어 방글라데시나 네팔 등 역내 다른 국가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있다.

서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2014년 4% 하락한 430억 달러 기록). 민간 투자 부문의 약세를 공공부문의 강세로 일부나마 상쇄하였다. 걸프 협력 회의 국가 (GCC)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나 원유,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지분 투자 외의 방식으로 개방하여 참여케 하였다. 동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는 6% 감소한 38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역내 최대 투자국인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부진이 주 원인이다. 터키의 해외직접투자는 두 배 증가한 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4년의 증가 후 찾아온 감소

2014년 카리브 연안 역외투자허브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14% 감소한 1,5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78% 감소한 중미 지역의 국제 인수 합병과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對 남미 지역 채굴산업 투자 감소의 여파로 보인다. 칠레를 제외한

주요 투자유입국들이 모두 음(-)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을 기록한 남미는 2년째 감소세를 보이며 4% 감소한 1,2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미 지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36% 감소한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사실 2013년에 멕시코에서 있었던 대형 인수합병 계약으로 이례적인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해당 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두 번의 호황을 맞이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중반, 과거 민간과 해외 자본에 개방하지 않았던 서비스와 채굴 산업 등에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한 자유화 및 민영화의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2000년대 중반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역내(특히 남미의) 채굴산업에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했을 때이다. 지난 10년 간 남미가 견인했던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성장세는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다. 과거 두 번의 호황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정책 입안가들은 post-2015 개발 계획 수립 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2014년, 반 토막 난 체제전환국의 외국인직접투자

2014년, 체제전환국에는 52% 하락한 480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20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다. **독립국가연합**은 역내 분쟁과 유가 하락, 무역 제재로 해외투자자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를 잃었다. 동 지역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인 러시아연방의 경우 70% 하락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 전망으로 인한 감소 외에도, 2013년에 이례적인 실적을 Rosneft와 BP간의 계약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유럽 동남부**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47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해외투자자들은 이들 국가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EU 시장과의 접근성에 눈독을 들이며 제조업에 주로 투자하였다.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는 31% 감소한 630억 달러에 그쳤다. 천연자원 기반 다국적기업, 특히 러시아 연방의 기업체들이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해외투자를 줄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의 경우 무역 제재와 경기 침체와 같은 기타 요인들이 201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2015년과 그 이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나 소비재 기반의 시장주의형 해외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러시아 내 생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폭스바겐(독일)은 칼루가(Kaluga) 공장의 생산을 줄일 계획이며, 펍시(미국)는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의 출신도 변하고 있다.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신규 투자의 둔화를 타 지역의 투자로 상쇄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은 러시아연방의 5대 투자국이 되었다.

● 선진국, 3년 연속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

선진국에의 외국인직접투자는 3년째 곤두박질치며 28% 하락, 4,990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다. 유럽에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2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2,8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북미에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1천 460억 달러였다. 단, 이는 보타폰의 버라이즌에 대한 1,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회수로 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한다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유럽 국가들은 핀란드와 스위스 같이 2013년에 음(-)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기록했던 국가들이다.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7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영국은 유럽 내 최대 유입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반면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와 같이 2013년에 대량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된 국가들은 2014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호주와 일본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도 하락하였다.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도 큰 변동 없이 8,230억 달러에 머물렀다. 유럽의 해외직접투자도 큰 변동 없이 3,160억 달러였다. 독일의 해외직접투자는 거의 3배로 증가하여 이제 독일은 유럽 내 최대 해외투자국이 되었고 프랑스도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그 외 주요 투자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는 소폭 상승하였고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6% 감소하여 지난 3년간 지속되었던 투자 확장기조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력은 외국인직접투자 외에도 사내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수익 등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및 일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증가로 인해 무역적자가 완화되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지식 기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다양한 경향을 보인 경제구조 취약 국가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저개발국(LDC)에의 외국인직접투자는 4%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에티오피아, 잠비아,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견인한 바가 크다. 그린필드형 투자의 경우, 앙골라에의 160억 달러 규모의 원유 및 가스정 개발사업에 힘입어 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모잠비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도 미미하거나 음(-)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내륙개발도상국(LLDC)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3% 감소한 290억 달러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실적이 3년 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몽고로 인해 대폭 하락하였다. 중앙 아시아의 내륙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을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과 이란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서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내륙개발도상국의 최대 외부 재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그 규모가 공적 개발 지원을 증가하였다.

2014년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SIDS)**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국제 인수합병의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하마 제도, 자메이카 및 모리셔스 등이 주요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이며, 이들 지역으로 향한 금액은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총 투자액의 72%를 차지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석유화학 업계의 12억 달러 규모 인수 건으로 인해 크게 뛰었고, 모리셔스의 경우도 국제 기업 인수로 인해 증가하였다. 파푸아 뉴기니 또한 원유 및 가스 산업에서 대규모 국제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순위 2위를 차지하는 자메이카의 경우 7% 감소한 5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2년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 1차 개발 금융 컨퍼런스 (First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이후 실시된 경제구조 취약 국가에 대한 외부 자금 조달 경로 조사는 지속가능 발전과 post-2015 개발 계획 달성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자원조달 방식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규모와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외부 개발 재원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생산과 수출 역량 향상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여를 고려해보면, 기타 자금조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구조 취약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한다. 공적과 민간, 국내와 해외 등 그 출처에 상관없이 모든 재원을 포괄한 접근법은 세가지 유형의 경제구조 취약 국가의 효과적인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2015년 7월에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릴 제3차 개발 금융 컨퍼런스에서 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0년 (2004-2014)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은 저개발국과 및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3배, 내륙 개발도상국에서는 4배 증가하였다. 국제사회의 투자와 개발을 위한 공조에 힘입어 2030년까지 이들 경제구조 취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을 지금의 4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위 국가들의 경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의 증진을 위해 자원 조달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투자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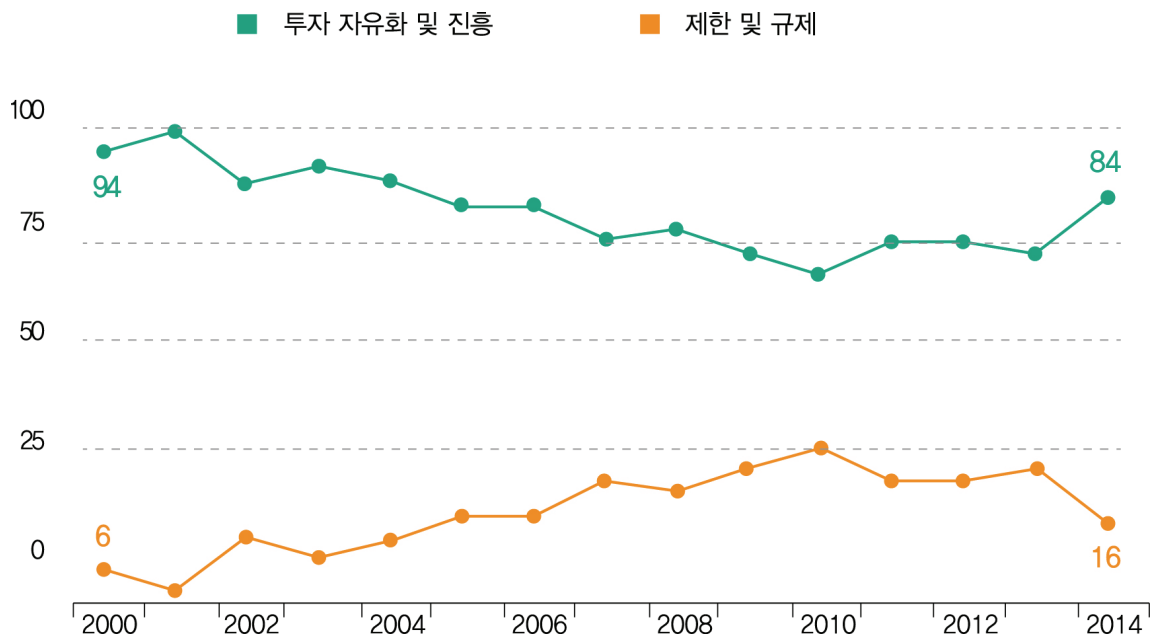
● 투자의 자유화, 진흥, 촉진을 향해 나아가는 투자정책

2014년 UNCTAD 조사에 따르면 37개국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63개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중 47개가 진입 장벽의 완화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입안된 반면, 9개는 오히려 투자의 제한과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다(남은 7개는 중립적임). 총 투자 정책 중 투자 자유화와 진흥을 위한 정책의 비중이 전년 72%에서 84%로 대폭 상승하였다(그림 9).

다수 국가들이 신규 투자 인센티브의 도입과 및 투자 절차 개선을 위해 투자 관련 법안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완화하고(기존에 제약이 있던) 산업분야(예: 인프라 및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였다. 신설된 투자 제한 혹은 규제 정책들의 대다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있거나 전략분야(교통, 에너지, 국방)에 관련되었다.

그림 9 2000-2014년 국가 투자 정책 변화

(단위: %)



출처: UNCTAD, 투자 정책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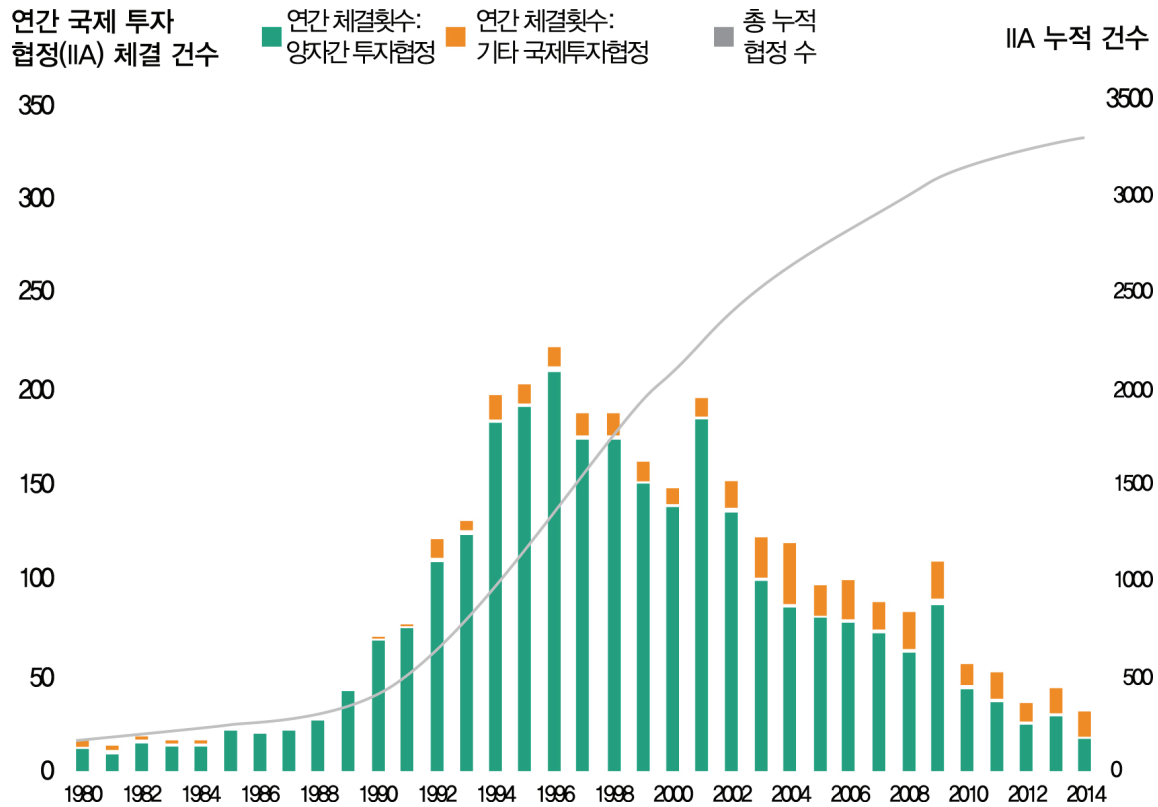
●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아직 소수에 불과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도입된 투자 정책 중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비교적 소수이다(약 8%). 위 정책의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분야(인프라, 보건, 교육, 기후 변화 완화)에의 민간 참여 유도를 목표로 하였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에 중요한 분야에의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건전한 규제 기반을 세워 투자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공익을 도모하여 투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역내 공조 강화를 통한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확장

31개의 신규 국제투자협정의 체결로, 국제투자협정 체제하의 조약 숫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3,271개로 증가하였다(2,926개 양자간 투자협정과 345개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으로 이뤄짐)(그림 10). 2014년 국제투자협정을 가장 활발히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7개)였으며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EU가(각 3개)가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연간 체결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역내 포괄적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다섯 건의 다자간 투자협정인 범 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에는 90여개국이 연루되어있다.

그림 10 1980-2014년 국제투자협정 체결 동향



출처: UNCTAD, IIA 데이터베이스.

또한 2014년 한해 동안 총 84건의 이중과세협약이 체결 되었다. 이중과세협약은 투자유입국과 투자국 간에서 벌어지는 국경 간 투자와 관련된 세무에 대한 규약이다. 이중과세협약과 양자간 투자협정의 규모는 함께 증가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3,000개 이상의 이중과세협약이 발효 중이다. 양자간 투자협정 및 이중과세협약의 범위는 상당부분 중복되며 양자간 투자협정의 3분의 2가량이 이중과세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

● 국제투자협정의 개혁을 위한 각 국가와 지역의 여정

많은 국가와 지역이 국제투자법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국제투자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특정 국가 집단 또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 (12개국이 검토 중), 유럽과 북미 (10), 라틴 아메리카 (8), 아시아 (7), 6개 체제전환국과 4개의 지역 기구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는 신규 국제투자협정 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존 조약을 폐기 중이다.

브라질,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2015년 2월에 개최한 국제투자협정 체제 개혁에 관한 UNCTAD 전문가 회의에서 그들의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5월 EU도 그들의 개념 연구를 발표하였고 노르웨이도 새로운 양자간 투자협정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각국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국제투자협정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최신 투자 정책 트렌드를 대표하는 UNCTAD의 투자정책 프레임워크는 투자협정 모델 쇄신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공공분야 규제 권한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제투자협정

UNCTAD의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검토된 협정의 대부분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같은 공공분야를 위한 규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예외사항, 핵심 보호 기준에 대한 설명, 투자 유치를 위한 당사국간 기준(보건, 안전, 환경) 완화 금지, 조약 범위의 한계 및 자세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조정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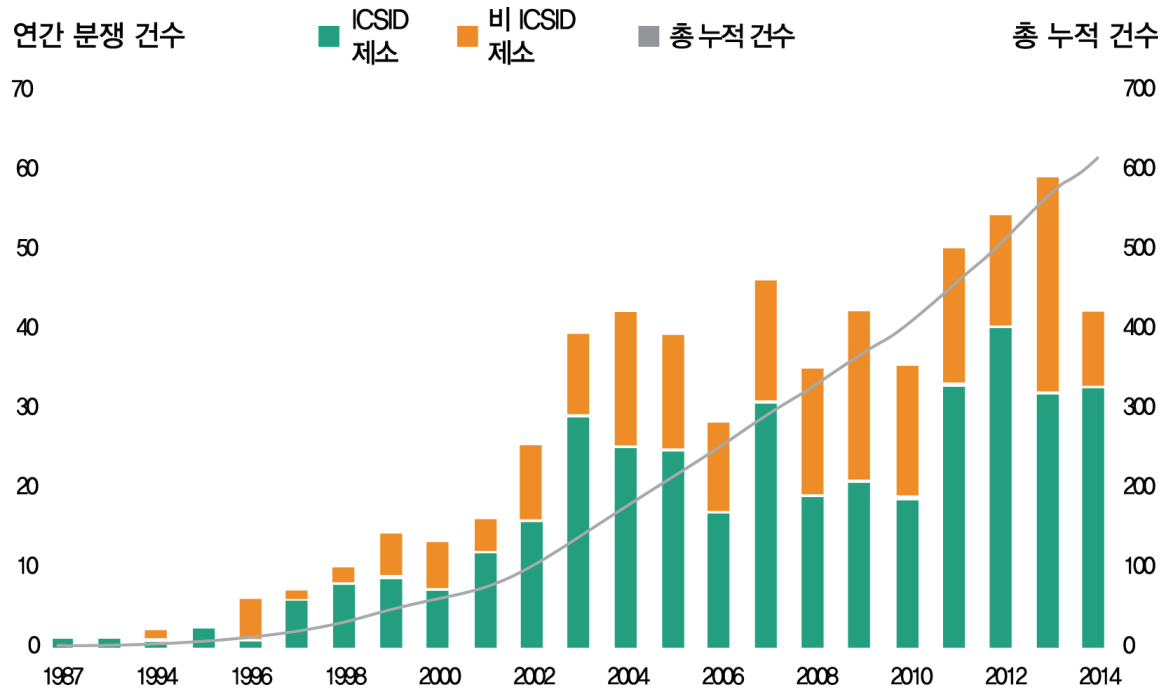
● 체결 전 단계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투자협정의 증가

비교적 일부 (228개)이긴 하나, 국가 조약 및 최혜국 의무를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까지 연장시키는 체결 전 단계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투자협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일본, EU 등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칠레, 코스타리카, 한국, 페루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개도국도 체결 전 단계 결의안이 포함된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체결 전 단계 결의안을 국제투자협정에 포함 시킬 경우, 규제 권한 보호를 위해 안전 구역 및 안전 장치 사용이 촉구 된다.

● 신규 투자자국가 분쟁 조정 건수의 감소, 선진국 분쟁 비중의 증가

2014년 국제투자협정에 기반한 42건의 신규 투자자국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투자자국가 분쟁 조정 건수는 총 608건 (그림 11)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전세계 99개 정부가 소송에 참여 중이다. 신규 분쟁 건 가운데 40%는 그 소송대상이 선진국이다. 2014년 해결된 분쟁 건수는 총 405건으로 이중 국가는 36%의 분쟁에서 승소하였고(144 건) 투자자는 27%(111건)를 승소하였다. 나머지는 합의되었거나 중단된 조정 건수이다.

그림 11 1987-2014년 연간 및 누적 투자자국가 분쟁 조정 건수



*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출처: UNCTAD, ISDS 데이터베이스.

국제투자 운영체제의 개혁: 행동지침

기रो에 서 있는 국제투자협정, 그 개혁의 필요성

현행 국제투자협정 체제에 대한 우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증대, 그리고 투자 환경의 개선과 같은 요인은 동시대의 정책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국제투자 규정 개정에 대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국제투자협정 체제는 검토와 개정의 과도기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 2014년 10월에 개최된 UNCTAD 세계투자포럼(WIF)을 비롯, 국제투자협정의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되었다. 이제 논의해야 할 것은 국제투자협정의 개혁 여부가 아니라 대상과, 방법, 그리고 그 범위이다.

개혁을 위한 본 보고서의 제언

『2015 세계투자보고서』는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여 행동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훈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행동지침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개혁의 도전과제, 정책 대안 분석 및 정책 수립의 다양한 수준에서 요구되는 지침과 제안을 충족시킨다.

지난 60년간의 국제투자협정 규정 수립의 경험을 토대로 개혁방침 도출이 가능하다. (i) 국제투자협정의 악영향과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막기 위해 보호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ii) 투자 진흥의 도구로써 국제투자협정의 한계는 존재하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iii) 국제투자협정은 정책, 전체적 일관성 및 역량 강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국제투자협정 개혁을 통해 다음 다섯 가지 주요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 **규제 권한의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 국제투자협정은 협정 당사국 주권 중 자국 내 정책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정당한 입안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구하기 위해 개혁으로써 이런 과도한 제한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국제투자협정 내 보호 조항(공정 공평 대우, 간접 수용 및 최혜국 대우)의 범위를 개선 및 명확히 하고, “안전 장치”(공공정책, 국가안보, 국제수지 위기 시 등엔 적용 제외)를 강화해야 한다.
- **투자 분쟁 조정 절차의 개선.**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 체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 투자 중재 체제 개선(임의 중재 과정, 국가-투자자 분쟁 조정 신청 제한),

기존 체계에 신규 요소 추가(항소 기관, 분쟁 예방 메커니즘) 또는 기존 체계의 교체(상설 국제 재판소 설립, 현존 국가간/국내 분쟁 중재 방식 사용)등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 투자의 진흥과 촉진.** 국제투자협정의 대다수가 효과적인 투자를 진흥하거나 촉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 내 보호 조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투자를 진흥할 뿐이다. 금번 개혁방침을 통해 국내 정책과의 연계로 투자진흥 및 촉진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목표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상기 개혁안은 투자국 및 투자유입 국내의 투자증진 방침, 이들 간의 협력과 역내 이니셔티브까지 포함한다.
- 책임감 있는 투자.** 해외투자는 투자유입국의 발전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환경, 보건, 노동권 및 기타 공익에 반하는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협정에는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은 누락이 되어 있다. 국제 투자협정 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의 국내법 준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명시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 전체적 일관성 강화.** 투자와 관련된 다자간 합의의 부재로 (세분화, 다면화, 다층적인 구조를 띄는) 국제투자협정 체계와 다른 국제투자협정, 국제법, 혹은 국내 정책 간에 모순이나 격차, 그리고 중복이 발생한다. 국제투자협정의 개혁을 통해 이런 간극을 해소하고 서로 동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국제투자협정 개혁과 국내 정책 입안을 연동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본 세계투자보고서는 국제투자협정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행동 지침은 국제투자협정의 다양한 측면과 (국제투자협정 조항 및 투자 분쟁 해결 등) 개혁 중심의 단계별 정책 수립 (국내, 양자, 역내 및 다자간) 과 관계된 사안들을 다룬다. 또한 대체적으로 개혁 정책 대안은 국제투자협정의 표준 요소와 전형적 조항을 다룬다.

여기서 염두해야 할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국제투자협정 개혁을 선행한다는 것이다. 신규 국제 투자협정의 체결 여부, 기존 협정의 탈퇴 또는 협정 개혁의 참여 등이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 포함 된다. 또한 국제투자협정 개혁의 성격, 본질 및 개혁 절차를 결정하는데도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개혁 안건의 범위와 깊이, 투자 보호와 규제 권한 보호 필요성간의 균형, 투자국과 투자유입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반영, 국제투자협정 개혁과 국내 투자정책 간의 조율 등이 국제투자협정 개혁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분절화된 국제투자협정 네트워크의 연결 및 공고화, 개별 국제 투자협정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 등이 개혁 절차와 관련된 질문이 될 것이다.

국제투자협정을 개혁할 때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을 취사선택해야 하는데, 그 조합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한다. 일부 개혁 방침들의 조합은 “과도한” 효과를 내거나 ‘투자 보호’라는 국제투자협정의 근본적 취지를 상실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개혁 방침과 조합을 택할 때 투자 진흥과 촉진에 부합하면서도 규제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 국가, 양자, 역내 차원의 행동지침 조율을 위한 전세계적 개혁 필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제투자협정 개혁방침은 국가, 양자, 역내 및 다자간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각 경우 개혁 절차는 (1) 문제 점검 및 파악, (2) 전략적 접근법 및 개혁 실행 방침 도출 (3) 실행 방침 이행과 성과 창출이 포함된다.

국가차원 (예: 신규 국제투자협정 모형 제시) 또는 양자간 (예: 기존 국제투자협정의 재협상) 차원에서의 개혁 단계는 각 국가별 개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분절화 및 비일관성을 존속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자간 또는 역내 차원의 개혁 이니셔티브는 추진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동의 우려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 개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역내 개혁 절차는 역내 (및 양자간) 조약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 검토에서부터 네트워크 강화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자간 차원에서는 구조적인 위험요소 및 새롭게 발생한 사안 등을 전 세계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 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된 국제투자협정 개혁의 핵심 사안은 향후 국제투자 규정 수립 등 조율된 접근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투자협정 네트워크의 강화 및 간소화와 지속가능발전 추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 접근법, 지침, 수단, 해결책과 개혁 절차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본 보고서는 국제투자협정 개혁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UNCTAD 및 기타 기관들이 국제투자협정 개혁과 관련하여 제공한 많은 의견들을 취합하여 실행 방침을 구상하였다. 각국이 실행방침을 사용해보며 자체적으로 국제투자협정 개혁을 위한 국가별 로드맵을 수립하길 권장한다. 국가별로 개혁 방침과 대안을 취사선택하여 각국의 개혁 목표에 적합한 종합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국제투자협정 개혁 지침

설명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투자협정의 개선	국제투자협정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투자협정 체제가 투자 진흥 및 촉진을 저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만드는 것이다.
2. 핵심 개혁 분야 초점	개혁의 핵심은 (i) 공익을 위한 규제 권한 보호, (ii) 투자 분쟁 조정 절차 개혁, (iii) 국제투자협정의 투자 진흥 및 촉진 기능 개선, (iv) 투자자 책임 증진 및 (v) 전체적 일관성 강화이다.
3.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개혁	개혁 절차는 다양한 단계를 포괄하고 각 단계(국가, 양자, 역내 및 다자간)가 상호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
4. 확실한 해결책 도출을 위한 단계별 진행	각 단계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실과 원인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확실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5. 포괄적이고 투명한 개혁 절차	개혁 절차는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6. 다자간 지원 체계 강화	안전망(정책분석, 기술적 협조, 경험 공유의 장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개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출처: UNCTAD.

개혁안은 국제투자협정의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를 진흥·촉진하면서도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국제투자협정 개혁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단계의 행동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조직적이고 순차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포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자간 지원 구조(표 4)를 활용해야 한다.

다자간 체계가 부재하고 기존에 체결된 국제투자협정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국제투자협정 체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 지원 구조 내에서 집단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지원 구조는 정책 분석, 조율, 기타 법률기구와의 상호작용 관리, 기술 지원 및 합의 도출을 통해 국제투자협정 개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UNCTAD도 이와 관련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직 공동 접근법을 사용할 때에만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안전성,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증진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투자의 이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조세 · 투자 정책 간 일관성 증진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정책 입안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는, G20 국가들에서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의 주 원인으로 지탄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SDG)의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세원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 회피 해결에 대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 개도국 정부 수입의 10%,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 정부 세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여러 연구기관과 NGO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규모를 추산해왔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실제 세입 기여에 대한 기초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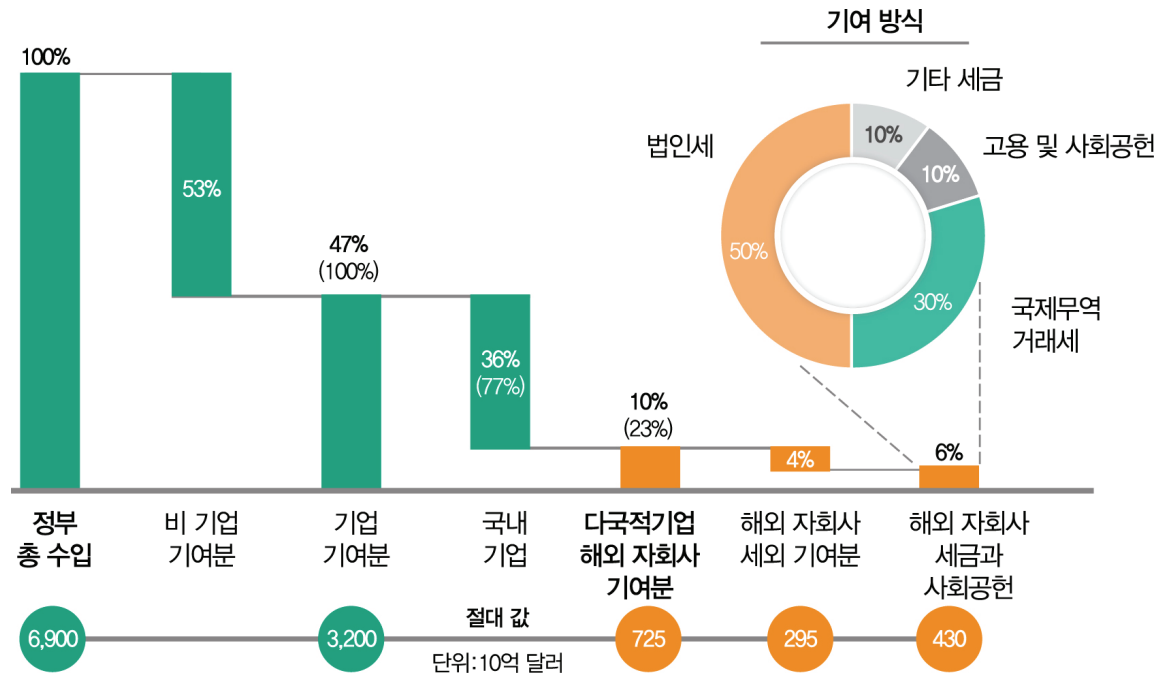
UNCTAD는 개도국 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주재국 정부의 세입에 연간 약 7,300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고 추산한다(그림 12). 이는 총 기업 조세 공헌의 23%이자 정부 총 세입의 10%이다.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들의 조세 공헌도는 국가·지역별로 그 규모(및 구성요인)가 다양하다. 선진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조세 기여도가 더 높는데 이는 개도국이 조세회피 노출 측면에서나 조세 공헌 의존도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 공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정부들은 예산의 14%를 해외 기업의 조세공헌에 의지한다).

또한 국가의 개발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으로부터의 세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개발도상국에서 운영중인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들은 법인세보다 2배나 더 많은 천연자원 사용 로열티, 관세, 고용 관련 세금, 사회 공헌, 기타 유형의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정부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의 정부 수입 기여도
2012년 개도국 정부 수입의 분포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UNCTAD.

● 국제투자의 30%, 역외 허브 경유한 투자로 밝혀져

다국적기업은 현지 국가 정부 세입에 기여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절세를 위해 노력한다. 다국적기업은 국제투자를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를 구축하며, 운영 제약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활용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와 방향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 유인에 민감하다. 초기 투자의 구조와 방법을 달리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책 입안가들은 주로 세무규정이나 회계의 투명성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투자는 필연적으로 조세 회피를 동반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조세 회피를 추구하는 현 투자 성향으로 인해 역외투자허브 (해외 조세회피처 및 특수 목적 회사 등)의 역할이 부각 되었다. UNCTAD의 역외 투자 매트릭스는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에서 역외투자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13). 2012년 비 역외 허브 투자대상국(non-offshore recipient countries, 하위 그림의 초록색, 주황색 부분)에 투자된 해외 기업 잔액(2조 1천억

달러) 중 30% 이상(6조 5천억 달러)이 역외 허브(주황색 부분)를 경유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역외 투자 기관 중 대다수는 조세관할권을 이용하는 소위 특수 목적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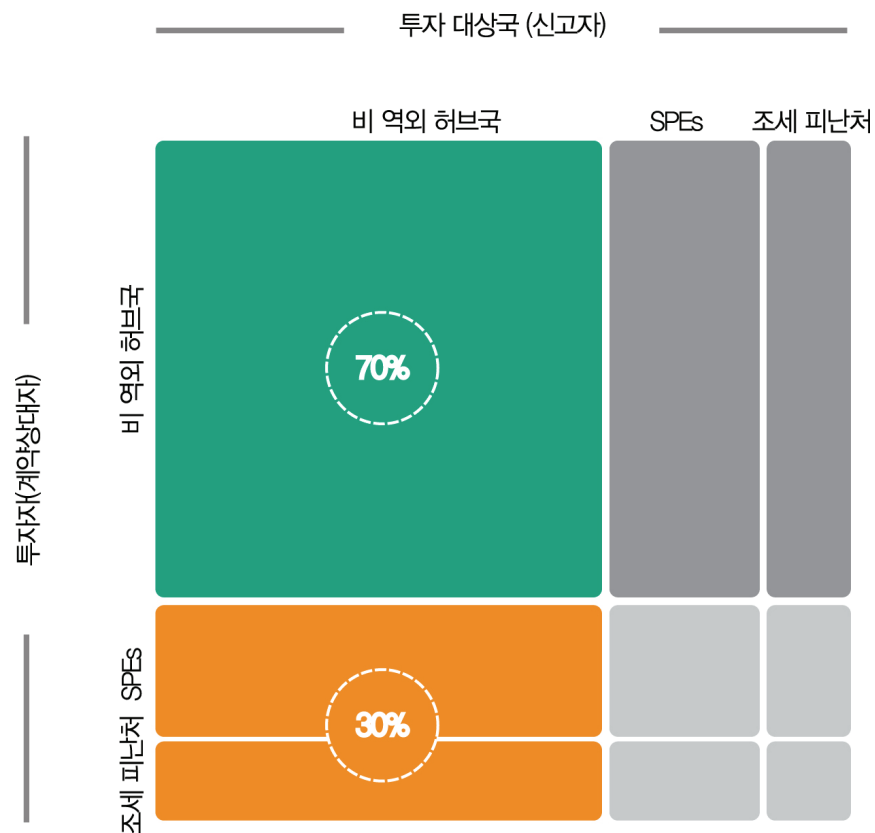
동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비 역외 허브 투자국의 국제 기업 투자 잔액 중 28%는 허브에 위치한 중개 회사(진회색 부분)로 투자된다. 일부의 경우 이들 회사가 더 높은 세율의 조세 관할권에 위치한 자회사를 대표하여 관리 서비스, 자산 관리 또는 금융 서비스 등 일부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회사는 절세 효과를 노리고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다. 다국적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에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의)중간기착지로써의 역할로 인해 국제 기업 투자가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다. 그래서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자료에서는 특수목적회사를 집계에서 제외하여 중복 집계를 방지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사법권 간의 세율 차이, 국가간 입법 및 세무 조약의 점 등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한다.

그림 13

투자자 유형별 비 역외 허브국 대내 투자 잔액
역외 투자 매트릭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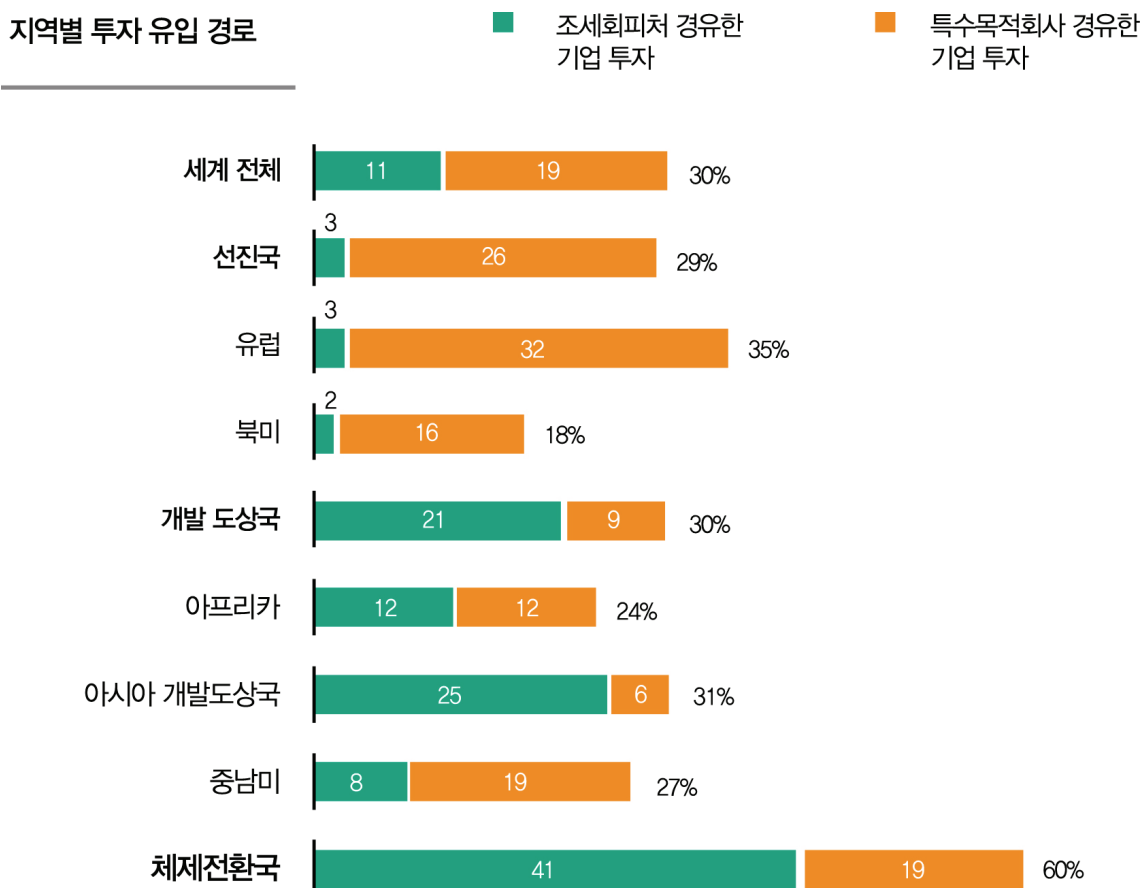
출처: UNCTAD.

다국적기업은 절세를 위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기업 구조를 사용한다. 두 가지 전형적인 방식이 존재한다. (i)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과 (ii) 자회사 설립 후 이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두 가지 모두 조세 회피를 위해 역외 투자허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관행으로 이 중 두 번째 방법은 역외 허브간 통한 직접 투자에 의존한다.

● 역외투자허브 경유로 인한 개도국 세입 누수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해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은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국제적인 사안이다. 개발도상국/선진국 여부에 상관없이 역외 허브를 통한 조세회피 투자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그림 14).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창출된 이윤의 이전은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발도상국은 자원 제약 및 기술 부족으로 복잡한 조세 회피 관행을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2012년 지역별 역외투자허브 경유 투자 노출도 (단위: %)
 역외 허브 경유한 투자의 비중



출처: UNCTAD.

조세 회피는 국가 발전에 쓰일 세원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한다.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약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원 손실이 역외투자허브를 경유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유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총 잔액 중 역외 허브 경유 투자의 비중과 외국인직접투자(과세가능) 조세 수익 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역외 허브를 경유한 투자가 많을수록 총 과세 가능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역외 허브 경유 투자가 10% 증가할 때마다 수익률이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상기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 전체를 포착한 것이 아니라 역외 허브를 거친 직접 투자 방식만 포착한 것이다. UNCTAD가 개발한 역외 지수 (Offshore Indicator)는 정부 세입 누수의 총액에 대한 추산이라기 보단, 세원잠식 및 조세이전의 신호지수 및 국가 단위 세원잠식 및 조세이전의 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만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심각한 세원 손실로 이어지기에 관할 사법권 간 세원 분배 시 공정하게 분배 하여야 한다. 특히 조세 역량이 부족하고 기업 투자자들의 세원 의존도가 높으며 역외 투자 노출도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제투자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조세 회피 방지책을 이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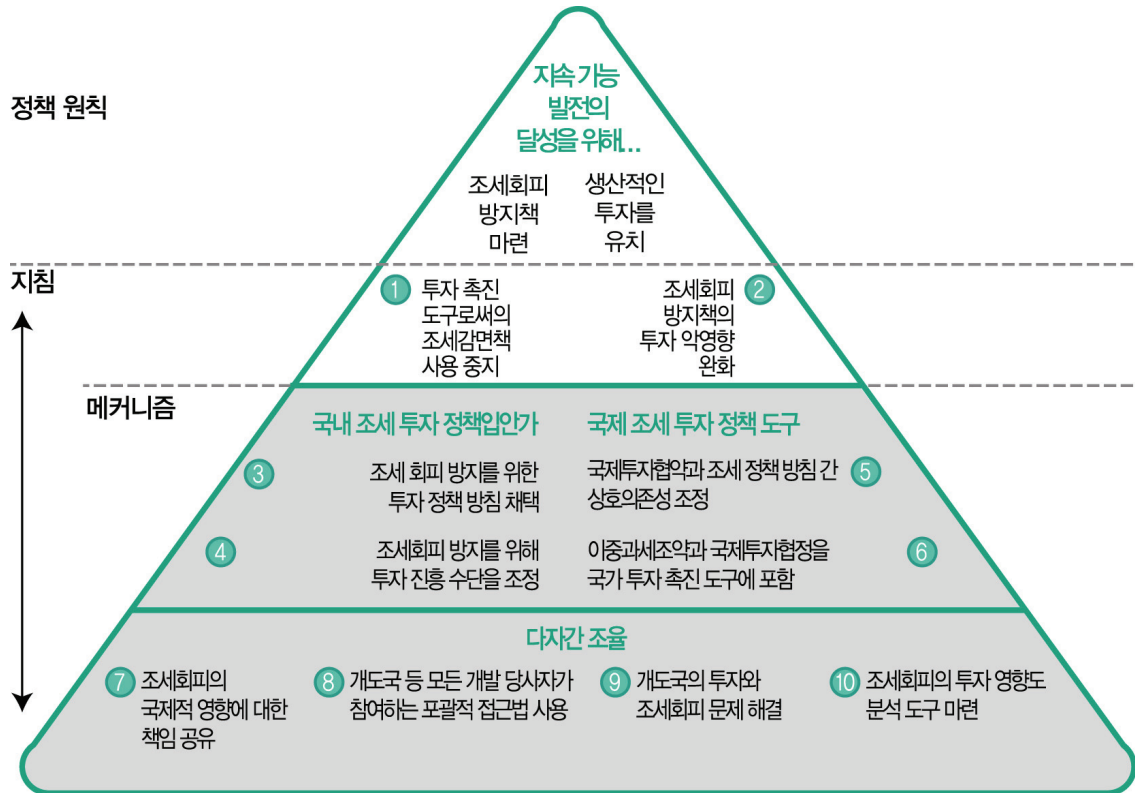
● 국내 및 국제 조세 · 투자 정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필요성

현재 역외투자허브는 국제투자의 일부로 자리잡았으며,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금융 인프라의 일환이 되었다. 따라서 역외투자허브 또는 투자 촉진 방안 (조세 협약 등)의 투자 진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조치는 도입 전, 반드시 투자 정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세회피 방지책에 대한 논의에서 아무도 투자 정책을 들여다 보지 않는 것 같다.

기업은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 회피를 가능케 하는 기업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따라서 투자 정책은 조세회피방지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림 15 국제 조세·투자 정책 간 일관성 증진을 위한 지침



출처: UNCTAD.

국제 조세 및 투자 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지침들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투자 정책과 구상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그림 15).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10가지 지침의 핵심 목표는 투자 진흥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도한 세금감면책의 폐지, 조세회피 방지책이 투자에 끼칠 영향의 고려, 투자유입국-투자국-경유국 간에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책임의 공유, 국제투자과 조세 협약 상호 간 영향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원의 기여도 및 개발도상국의 조세회피 방지 역량의 강화다.

맺음말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2014 세계투자보고서』는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의 필요성과 개도국 내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제투자협정 및 국제 조세체제를 포함한 국제 투자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투자협정과 조세체제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국제투자의 진흥과 촉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동일하다. 상응하고 있는 두 체제는 유사하다. ‘스파게티 보울’ 마냥 3,000개 이상의 양자간 협정이 얹히고 얹혔다는 점에서, 비슷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각 체제는 자체적으로 매긴 개혁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의 의제를 갖고 접근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개선된 운영구조와 향상된 일관성의 확보 외에도 두 체제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국제투자 운영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투자 가능한 환경을 구축 및 유지하고,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기회를 극대화하며(이는 2015년 7월 중순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릴 제3차 국제 개발 금융 컨퍼런스의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의 세계 경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국제투자 및 개발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국제투자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KOTRA자료 15-03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요약번역본

– 국제투자 운영구조의 개혁 –

| 발 행 인 : 김재홍

| 발 행 처 : KOTRA

| 발 행 일 : 2015년 10월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06792)

| 전 화 : 02)3460-7114(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I S B N : 978-89-94348-77-3 (93320)

Copyright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요약번역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VEST 
KOREA



ISBN 978-89-94348-77-3(93320)